

R&D팀

---

## 2021년 3월 MICE 산업 동향

---

2021. 4.

# 목 차

---

1. 2021년 글로벌 MICE 지원 전략 및 방침 .....	3
2. 해외시장 동향 .....	9
3. 국내시장 동향 .....	19

# 1. 2021년 글로벌 MICE 지원 전략 및 방침

## 가. 아시아 · 태평양

### ■ 세계관광기구(UNWTO), 2022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64% 국제관광 회복 예상

- 세계관광기구(UNWTO)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22%는 2021년 4분기에, 64%는 2022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아시아는 코로나 19 최초 발생지역이었으나, 안전한 MICE 행사 개최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MICE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1) 아시아 · 태평양지역별 MICE 전략 및 지원제도

### ■ 태국: 태국전시컨벤션뷰로, 2021년 국제 전시회 활성화 5개 전략 발표

- 태국전시컨벤션뷰로(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TCEB)는 2021년 국제 전시회 활성화 전략을 구성했으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스마트, 디지털, 통합 의료 서비스, 바이오 등 12개의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중점을 둠
- '2021 국제 전시회 활성화 핵심 5개 전략은 온라인 테크놀로지, 전시회의 위치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아시아 중심 접근방식 개발: 아시아 국가의 전시자, 주최자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지원 패키지 개발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무역 박람회 개최
  - 클러스터링 이벤트 유치: 콘텐츠와 행사 주제가 일치하는 컨벤션 및 페스티벌을 하나의 클러스터링화 해 이벤트를 유치함
  - 태국 내 잠재 지역 MICE 기회 창출: 이벤트 개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MICE 기회를 창출함
  - 온라인 테크놀로지 활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문객의 경험을 높이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행사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부담감을 줄임

1) 본 고는 한국관광공사 MICE Intelligence의 글로벌 MICE 동향 자료에서 국가별 2021년 MICE 지원 전략 및 방침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 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는 2021년 계획되어 있던 국제 전시회 44건과 신규 14건 등 총 58건의 국제 전시회를 지원하여 230억 바트(한화 8,186억 9,5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홍콩: 홍콩관광청, 홍콩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2021년~2022년 중장기 전략 발표**

- 홍콩관광청(Hong Kong Tourism Board, HKTB)은 2021~2022년 예산으로 11억 3,800만 달러(한화로 1,633억 6,000만 원 상당)를 배정함
- 홍콩 정부는 MICE 개최 도시로서의 경쟁력 유지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1~2022년 단기·중기·장기 업무 전략을 수립함<표1>

<표 1> 홍콩 단기·중기·장기 전략(2021~2022년)

전략	세부 내용
단기전략 1	-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면 '스테이케이션 딜라이트(Staycation Delights)' 라는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관광프로그램을 론칭 할 계획
단기전략 2	- 국경 간 여행이 재개되면 '오픈 하우스 홍콩(Open House Hong Kong)' 이라는 홍보 플랫폼을 출시해 홍콩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도시 전역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 할 예정
중장기전략 1	- 홍콩관광청은 홍콩의 혁신적인 관광 이미지를 재창조하기 위해 주요 국제 언론과 제휴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
중장기전략 2	- 원스톱 E-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방문객을 위한 디지털 여행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
지속 이니셔티브 1	- 홍콩관광청은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MICE와 크루즈 투어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홍보와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
지속 이니셔티브 2	- 국제 여행 및 MICE 행사 재개에 앞서 국제적으로 홍콩이 화자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이벤트 기획과 지원을 할 예정

- 홍콩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향후 3~6개월까지는 국제 여행이 완전히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며, 선별적으로 지정된 국가에 한하여 국경을 개방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임

## ■ 싱가포르: MICE 종사자 일자리 지원제도(JSS) 연장 및 시범 회의·이벤트 모집

- 싱가포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항공 및 MICE 분야의 일자리 지원 계획(Jobs Support Scheme, JSS)을 포함한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한 ‘이머징 스트롱거 투게더 버젓(Emerging Stronger Together Budget)’ 예산을 11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9조 1,573억 9,000만 원)로 책정함
- 일자리 지원 계획(JSS)은 2020년 2월 도입한 이후 4차례 연장되었으며, 올해 일자리 지원 계획에는 총 7억 달러(한화 5,828억 3,400만 원)를 추가할 예정임
  - 지원제도 티어 1에 해당하는 항공 및 관광·MICE 업계 종사자는 4월~6월 지급된 임금에 대해 30%를 일자리 지원 계획 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7~9월까지 지급될 임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싱가포르 관광청은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세이프(Covid-Safe)시범 이벤트 및 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
- MICE 업계가 IT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더 프로그램, 5G 및 AI와 같은 기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나. 미주

### 1) 비즈니스 여행·회의에 대한 인식 변화

#### ■ 코로나 19 백신 개발로 빠른 시일 내 관광 및 MICE 산업 재개 기대

- BCD Travel에서 2021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주 전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비즈니스 여행객의 국제 관광에 대한 불안감이 백신 개발 전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708명 중 60%가 2021년 3분기에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90% 이상은 연말에는 해외 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Heart+Mind Strategies에서 2021년 1월 미국인 중 해외 비즈니스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58%가 가상 비즈니스 회의 및 컨퍼런스에 심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7%는 대면 MICE 행사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인

것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된다면 빠른 시일 내 MICE 대면 이벤트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미국은 2021년 3월 2일 기준으로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한 미국인이 약 7,6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2) 미주 MICE 전략 및 지원제도

### ■ 조 바이든 정부: 5월 국제 여행 재개 검토 계획 발표 및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

-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금지했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 이슬람 주요 7개국의 여행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지난 1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영국, EU, 브라질 등과의 국제 여행을 제한함
-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시기를 5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 멕시코, 캐나다, 영국, 브라질과의 국제 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라 밝힘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 공항, 버스, 기차 등 여행객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교통수단과 여행지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

### ■ 미국 여행협회: 마스크 의무화 찬성, 자가격리 기간 7일 및 백신 여권 개발 제안

- 미국 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찬성하는 반면, 장기간의 격리조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7일간 격리 기간을 갖는 것이 여행을 재개하는데 합리적인 방침이라 밝힘
- 미국 여행협회 및 항공 연합은 백악관에 해외여행 제한을 철회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로드맵과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코로나 19 검사 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여권'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캐나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MICE 행사 지침 업데이트

- 캐나다는 지역 긴급 비즈니스 재정 지원(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RRRF), 비상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긴급 임금 보조금 지원(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등 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관광·MICE 업계와 지역 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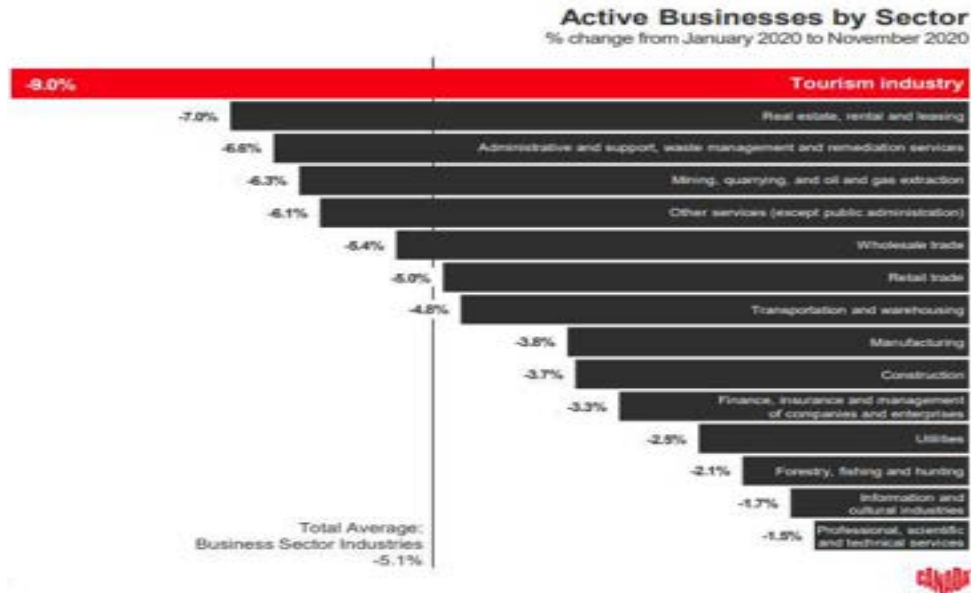
<표 2> 캐나다 긴급 재정지원

지원책	세부 내용
지역 긴급 비즈니스 재정 지원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RRRF)	- 로컬 기업 지원금 6억 7,500만 달러(한화로 6,029억 4,375만 원)와 기업과 국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지원금 2억 8,700만 달러(한화로 2,563억 6,275만 원)를 마련하여 기업과 직원 급여 지급 등 운영 지원 및 기업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함
비상 대응 혜택 연장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금으로 2020년 3월 15일~ 9월 26일까지 4주간 2,000 달러(한화 약 178만 원)를 지원함

-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및 실외 모임과 MICE 행사 진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림
- 온타리오주는 2021년 2월부터 실내 이벤트 모임을 전면 금지했으며, 야외 행사 및 모임은 5인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 및 행사는 법원 관련 행사, 정부 관련 행사, 사회 복지 등의 목적에 의한 행사 외에는 금지함
  - 행사 개최 시 지정된 입구 및 출구 사용을 통해 참가자 수 컨트롤과 출입구와 공용공간의 혼잡도 관리가 필요함
  - 그 외 기타 조항: 예배와 같은 종교활동은 실내 공간의 최대 15% 허용, 식당에서 식사 금지, 콘서트, 극장 및 영화관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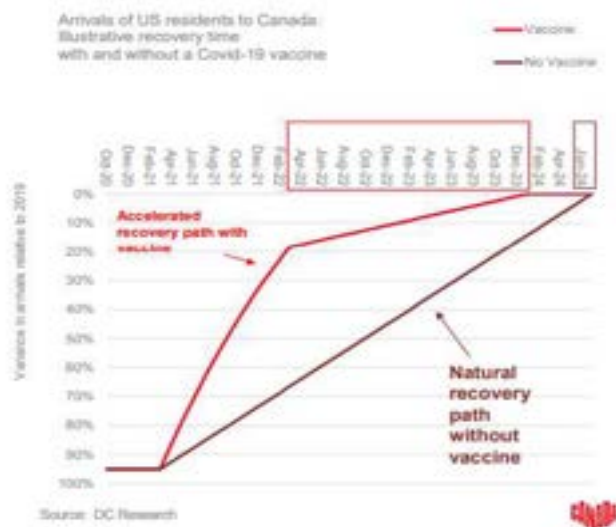
[참고] 캐나다 관광청: 관광업의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 분석 및 관광 회복 시기 2023년 전망

- 캐나다 관광청은 모든 비즈니스 산업 중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으로 관광업을 선정함
- 모든 비즈니스 산업의 피해 평균을 -5.1%로 보았을 때, 관광업은 -9% 수준으로 이는 임대업, 석유사업, 무역업, 운송업, 제조업 등 보다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업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 캐나다 비즈니스 산업별 피해 정도 추정 그래프

- 캐나다 관광청은 국경을 개방하는 시기에 따른 관광 회복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캐나다 관광청은 백신의 도움이 없을 경우, 2021년 4월 국경을 개방하면 2024년 6월경에, 2021년 10월에 국경을 개방하면 2026년에 2019년 수준의 관광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백신이 보급된다면, 회복 속도가 1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4월에 국경을 개방할 경우 2023년 관광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캐나다 관광청, 관광 회복 시나리오



## 2. 해외시장 동향

###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 싱가포르: 2021년 최대 2,000명 참가 가능한 대면 행사 개최 계획 발표

- 3월 3일, 싱가포르는 ‘리이메진 MICE 버추얼 쇼(Reimagine MICE virtual show 2021)’에서 올해 싱가포르에서 2,0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대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힘
  - 대표적인 대면 행사로 8월 17일-20일에 개최 예정인 ‘2021 세계 경제 포럼 특별 연례 회의(World Economic Forum’s Special Annual Meeting 2021)’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미국 의료 전문가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인 ‘인비시리인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Invisalign Asia Pacific Summit)’, 참석자의 약 80%가 국제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초고층도시건축학회 협의회(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등이 있음
- 싱가포르는 2020년 10월부터 약 50여 개의 파일럿 컨퍼런스를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비즈니스 행사 개최지로 신뢰를 쌓았던 것이 올해 대면 행사 개최계획에 도움이 됨



[그림 3] 싱가포르 리이메진 MICE Virtual Show 포스터

## ■ 싱가포르: 백신 접종 증명서 소유한 호주 비즈니스 방문객에 한하여 트레블버블 허용 검토

- 3월 14일, 싱가포르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유한 비즈니스 관광객의 여행을 재개하는 트레블버블 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 밝힘
- 또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지참한 제3국 국적의 여행객이 싱가포르로 입국할 경우, 싱가포르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후 호주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
- 싱가포르 국방부는 트레블버블을 통해 호주 관광객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항로를 이용하고, 싱가포르의 공공보건규정을 준수한다면, 별도의 격리조치를 생략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함

## ■ 태국: 태국 MICE 전문가, 외래관광객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업계 회복에 효과 없을 것으로 예상

- 태국은 4월 1일부터 외래 관광객에 대한 자가 격리 기간을 2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백신 접종을 한 관광객의 경우 7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태국 비즈니스 행사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태국의 MICE 산업의 회복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 태국의 컨퍼런스 경영사(Conference & Destination Management, CDM)의 수마테 수다스나(Sumate Sudasna)전무 이사는 태국으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체들은 2~3일간의 짧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오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긴 체류기간으로 추가 비용 등의 부담이 존재한다고 밝힘
- 많은 MICE 업계 관계자는 태국의 비즈니스 행사에 의무적인 자가 격리 기간을 없애야 업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태국 정부는 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10월 모든 격리 및 검역 요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시컨벤션주최자 협회, 행사 등록 증명서 발급자에 한한 여행 허용 제안**

-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5일부터 이동통제명령 (Movement Control Order, MCO) 을 내린 지역의 MICE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250명 규모까지 수용하는 완화책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 전시컨벤션주최자협회 (Malay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 MACEOS)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이동 통제 명령으로 인해 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면 업계는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응답함
- 또한, 말레이시아 전시컨벤션주최자협회 (MACEOS)의 프란시스 테오 (Francis Teo) 회장은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70%의 백신 접종이 2022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까지 여행 제한 정책을 연장한다면 MICE 산업계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밝힘
- 프란시스 테오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MICE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행사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들에 한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면, 행사 개최지 및 말레이시아 경제를 재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밝힘

## ■ 필리핀 : 필리핀 관광부, 2021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 온라인 개최

- 3월 19일, 필리핀 관광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다이빙 산업의 회복 및 육성을 위해 ‘2021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PHIDEX, 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Expo)’를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함
  -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는 2019년 첫 개최 이후, 필리핀에서 가장 큰 다이빙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코로나 19의 우려로 인해 올해에는 온라인 행사로 개최함
  - 2021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지 다이빙 산업과 관련 업계를 위해 다이빙 업계의 회복과 안전한 다이빙 문화의 정착을 주제로 진행됨
-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는 여러 저명한 국제 해양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이빙 산업 및 필리핀 바다 보호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토론과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메인 무대, 엑스포 무대, 패널 무대 3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와 패널 토론을 행사 사이트에서 시청함
-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다이빙 관련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Dive Travel Exchange (TRAVEX)’에서 행사 파트너 및 참여업체 간의 비즈니스 미팅과 상품 판매가 진행됨



[그림 4]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 포스터

나. 미주 지역

■ 미주: 하와이컨벤션센터, 코로나19 규제 완화책에 맞는 행사 프로토콜 제작

- 2월 25일 하와이 주가 오아후제도(Oahu)에 대한 코로나19 규제 완화책 ‘Tier 3’을 발표함에 따라, 하와이컨벤션센터(Hawai'i Convention Center, HCC)는 Tire 3에 맞는 새로운 행사 프로토콜을 제작함
- 따라서, 컨벤션센터, 전시장, 연회장과 같은 베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낮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미국의 다른 주에서 하와이를 방문할 경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10일 격리가 면제됨
- 하와이컨벤션센터는 지난 1년간 ‘베뉴 실드(Venue Shield)’라고 불리는 방역 조치로 열화상 카메라 구비, 개인위생 키트 제공, 개별 포장된 식사 제공, 언택트 비즈니스 미팅 체계 구축 등을 실시함
- 또한, 신규 가상회의 패키지인 ‘턴키 비디오 프로덕션 서비스(Turnkey video-produc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전문적인 사전 녹화 프로그램 관리, 웨비나 및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가상 플랫폼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미팅 설계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함

HONOLULU REOPENING STRATEGY - TIER 3	
<b>TIER 3</b>	Case Count (7 day average) <b>20-49</b> Test Positivity Rate <b>1-2.49%</b>
Sectors and Businesses: Visit <a href="http://www.oneoahu.org/reopening-details">www.oneoahu.org/reopening-details</a> for more information	
<b>Essential Businesses</b>	Allowed
<b>Social Gatherings</b>	10 people
<b>Parks, Beaches, Trails, Camping</b>	10 people
<b>Outdoor sports (no spectators)</b>	10 people
<b>Outdoor organized team sports (no spectators)</b>	Allowed, no spectators
<b>Pools</b>	Allowed
<b>Shooting and Archery Ranges</b>	Allowed
<b>Golf Courses</b>	PGA/Hawaii Golf Phase 3
<b>Certain Real Estate</b>	10 people
<b>Car Dealerships</b>	Allowed
<b>Automated Service Providers</b>	Allowed
<b>Mobile Service Providers</b>	Allowed
<b>Retail and Service (includes essential businesses)</b>	Allowed
<b>Indoor Malls</b>	Allowed
<b>Spiritual Services</b>	Allowed
<b>Funerals</b>	Allowed
<b>Restaurants/Bars (with outdoor seating only)</b>	10 people
<b>Zoos, Sea Life Aquariums, Museums, Botanical Gardens</b>	10 people
<b>Indoor Sports</b>	Closed
<b>Other Commercial Attractions</b>	10 people
<b>Water Parks, Cultural Activities, Amusement Parks, Golf Courses</b>	10 people
<b>Arcades</b>	50% capacity
<b>Bowling</b>	10 people
<b>Tours</b>	10 people
<b>Recreational Boating (Personal)</b>	10 people
<b>Commercial Recreational Boating</b>	50% capacity
<b>Indoor Judo, Jujitsu, Karate, Taekwondo</b>	Allowed
<b>Legal Short-Term Rentals</b>	Allowed
<b>Transportation for Non-Essential Activities</b>	Allowed
<b>Hair &amp; Nail Salons, Barber Shops</b>	Allowed
<b>Personal Care Services</b>	Allowed
<b>Pet Services</b>	Allowed
<b>Business Offices</b>	Remote Encouraged
<b>Conference/Breakrooms</b>	Spaced 6 ft apart
<b>Movie Theaters</b>	Allowed
<b>Group Fitness Classes</b>	10 people outdoors 10 people indoors
<b>Gym and Fitness</b>	50% capacity
<b>Dance/Social/Nightlife</b>	Closed
<b>Drive-In Services</b>	Allowed
<b>Structured Events</b>	Static Events Allowed Outdoor only, 100 people including staff, with conditions
<b>Weddings</b>	10 people

[그림 5] 하와이, Tier 3 세부 지침

■ 미주: 네바다주, 행사 수용인원 50% 허용 및 대규모 모임 승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발표

- 미국 네바다 주는 3월 15일부터 중·대형 규모의 행사의 수용 인원을 50%까지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모임 승인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 밝힘
  - 네바다주는 14일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평균 231명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완화책을 발표함
- 라스베가스는 오랫동안 이어온 MICE 개최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위생·안전 프로토콜과 사회적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라스베가스는 6월 8일~10일 9억 8,900만 달러(약 1조 1,225억 상당)를 투자해 새로 오픈한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Center)의 웨스트홀에서 첫 번째 로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미주: 애틀랜타, 컨벤션센터를 영화 및 TV 제작 스튜디오로 활용하며 수익 창출과 일자리 보장

-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의 일부 대형 컨벤션센터는 행사장을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로 장소를 이용했으며, 일부는 작년 봄부터 영화 및 TV 제작을 위한 장소로 이용함
- 애틀랜타의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GWCC)는 영화 및 TV 시리즈 촬영장으로 19개의 프로그램을 촬영했으며, 앞으로 약 10개의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되어 있음
  -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행사장의 사무실, 복도, 다양한 사이즈의 미팅룸 등 공간을 촬영 용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 촬영에 적합하다고 밝힘
  - 새로운 방향으로 컨벤션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함

## 다. 구미주 지역

### ■ 영국: 영국 정부, MICE 인력 지원 프로그램 9월 말까지 연장

- 영국 재무장관인 리쉬 슈나크(Rishi Sunak)는 영국 정부의 MICE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을 금년 9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 밝힘
- 영국 정부는 MICE 업계에 지원금을 전달하여 무급휴가 중인 MICE 종사자의 임금 80%를 지원하며, 7월부터는 사업주가 직접 지원금의 10%를 부담하게 하고, 2021년 영업 요금의 2/3 지원과 폐업한 기업의 경우 최대 200만 파운드(한화로 30억 7,944만 원) 지원할 것이라 밝힘
- 영국 정부는 9억 7,700만 달러(한화로 1조 1,016억 6,520만 원)의 예산을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히며, 해당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국제 MICE 행사 유치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영국의 비즈니스 이벤트 파트너십(Business Visits and Events Partnership, BVEP)은 향후 업계 지원 프로그램 연장, 자영업자 지원, 추가 보조금 도입 등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원금의 명확하고 투명한 사용을 요구함



## ■ 벨기에: 유럽 여행업협회, 백신 인증서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문 발표

- 3월 17일, 유럽 여행업협회(European Travel Agents' and Tour Operators' Associations, ECTAA)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인증할 수 있는 디지털 그린 인증서(Digital Green Certificate) 도입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발표함
  - 유럽여행업협회(ECTAA)는 1961년 6개 회원국이 모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유럽 내 7만여 개의 여행사를 대표하는 기구임
- 유럽여행업협회는 60주년 기념식에서 코로나 19가 여행과 관광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B2B(Business-to-Business)와 B2C(Business-to-Customer) 부문에 대한 협회의 역할 뿐 아니라, 디지털 그린 인증서(Digital Green Certificate) 도입을 통한 관광의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EU의 인증서는 인증서의 보안과 진위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QR코드 및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록한 디지털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됨
  - EU 시민의 경우 해당 인증서 소지 시 EU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보장과 백신 접종 여부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논의 중임



[그림 6] 유럽 여행업협회, 디지털 그린 인증서(Digital Green Certificate)



## ■ 핀란드: 마트카 노르딕 여행박람회, 코로나19 장기화로 2022년으로 개최연기

- 마트카 노르딕 여행박람회(Matka Nordic Travel Fair)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021년 5월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2022년 1월로 연기됨
  - 마트카 노르딕 여행 박람회는 매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며 약 1,000개의 기업과 89개국에서 온 7만여 명의 참가자가 방문하는 북유럽 최대규모의 여행박람회임
- 이번 연기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핀란드 당국의 규제 강화 및 여행 제한조치이며,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으나 기존 행사 개최 일정이었던 5월 이전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어렵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유행에 따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임
- 여행박람회의 베뉴인 메수케스쿠스 헬싱키 엑스포 컨벤션 센터(Messukeskus Helsinki, Expo and Convention Centre)는 핀란드 여행산업협회(Association of Finnish Travel Industry)와 협력업체와의 논의 끝에 2022년으로 연기함
- 메인 행사인 여행박람회는 연기되었지만, 관광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트카 워크숍은 5월 20일에 정상 개최할 예정으로, 국내 관광기업과 아웃바운드 여행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그림 7] 2022년 마트카 노르딕 여행박람회 포스터

## 라. 오세아니아 지역

### ■ 호주: 캔버라국립컨벤션센터, 코로나19 이래 첫 대규모 컨퍼런스 'AISA 2021' 개최

- 캔버라국립컨벤션센터(National Convention Centre Canberra, NCCC)는 3월 16일~18일까지 호주 정보보안협회(Australian Information Security Association, AISA)가 주최하는 호주 사이버 컨퍼런스(Australian Cyber Conference)를 하이브리드로 개최함
  - 호주 사이버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호주에서 진행된 첫 대규모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로 오프라인 800여 명과 온라인 400여 명이 참석함
- 캔버라 컨벤션 뷰로(Canberra Convention Bureau, CCB) CEO인 마이클 매튜(Michael Matthews)는 캔버라는 2020년 중반 이후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고, 모든 장소에 엄격한 방역 지침이 적용된 도시이기 때문에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에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강조함
- 또한, 캔버라국립컨벤션센터 총괄 매니저인 스티븐 우드(Stephen Wood)는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 및 위생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 안전 대응을 선도해왔으며, 캔버라 지역의 MICE 회복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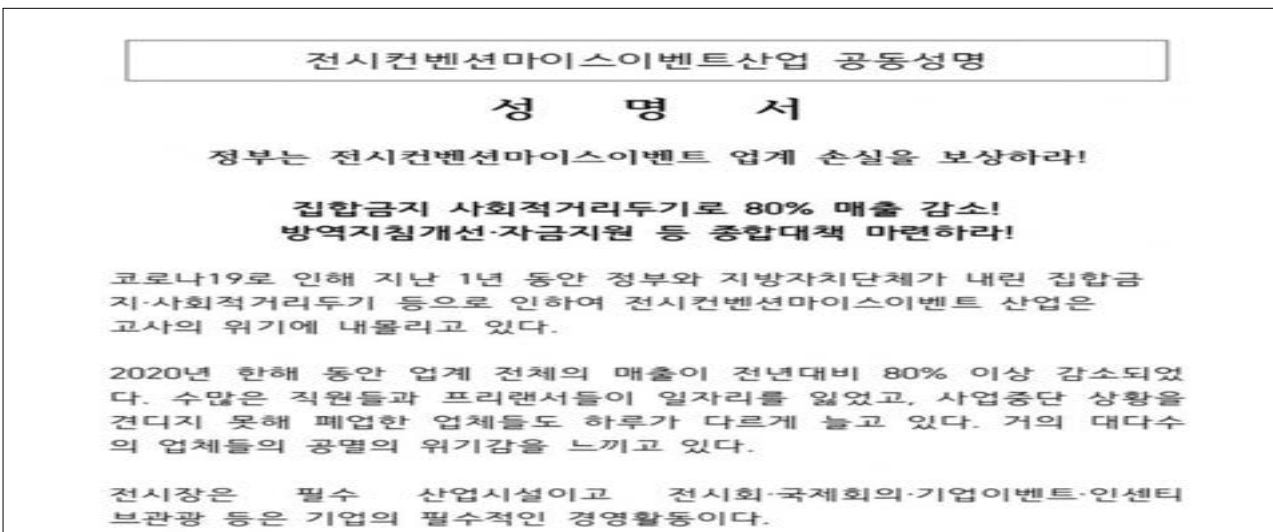
[그림 8] 호주 캔버라국립컨벤션센터(National Convention Centre Canberra, NCCC)

### 3. 국내시장 동향

- 서울: 한국무역협회·코엑스, 베트남 '빈증 신도시 전시장' 운영계약 체결로 한국과 베트남 우한 인프라 구축
- 3월 8일,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베트남 투자개발공사 베카멕스(BECAMEX)와 베트남 최대규모 전시장인 빈증 신도시 전시장(WTC Binh Duong New City Expo) 운영계약을 체결함
  - 빈증 신도시 전시장은 호치민 인근 산업도시 연 면적 2만2,000㎡에 1만1679㎡의 실내 전시장과 7,935㎡의 옥외전시장으로 구성된 베트남 최대 면적의 전시장으로 코엑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 2월 완공되었음
- 무역협회와 코엑스는 호치민에 위치한 현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들의 신남방 국가 교역 전진기지로서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와 문화·관광을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코엑스는 전시회 개최와 시설운영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관리자급 직원들을 베트남에 파견해 약 3년간 빈증 신도시 전시장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케팅 전략, 시설 총괄 운영 사업 등을 착수할 예정임
  - 무역협회와 코엑스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바이어들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시회 콘텐츠를 확충하고 온라인 기술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와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AR·VR 등의 IT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임
- 이번 최종 계약 성사는 코엑스의 맞춤형 MICE 상품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 노력과 무역협회의 신남방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 국내외 MICE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K-MICE의 베트남 진출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신남방 국가들의 MICE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임

■ **세종시 MICE 업계 집합 금지 명령 피해보상 및 방역 지침 개선 자금 지원 등 정부 대책 촉구 호소문 발표**

- MICE 업계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 방역 지침 개선, 자금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함
  - 대국민 호소에는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미이스협회, 한국 PCO 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한국중소상공인지영업자연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총 10개의 MICE 업계 관련 민생단체가 참여함
- 대국민 호소에 참여한 협회 및 단체는 MICE 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필수경제부문임을 인정받았으며, 전시장 및 호텔 등 철저한 방역체계가 구축된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현장에 부합하는 방역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호소함
- 또한, MICE 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며 받은 고용지원금 혜택 외에 재난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제외되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힘
- MICE 업계가 제시한 대책은 정부 및 자자체 집합금지로 입은 손실 보상, 전시장 및 회의실 방역 지침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 정부 및 공공기관 행사 정상 개최, 긴급 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한 연장, 전시장 임대료 지원 등이 있음



[그림 9] MICE 업계 대국민 호소문 일부

### ■ 경상도: 부산 벅스코, 3개 대형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 부산 벅스코(BEXCO)는 3월 11일~14일까지 3개의 대형 전시회인 베이비페어, 국제식품박람회, 건축인테리어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함
  - 벅스코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된 베이비페어는 총 310개 업체가 참가해 600여개의 부스에서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상품과 제품을 전시함
  - 벅스코 제1 전시장 2B 홀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판매됨
  - 2A 홀에서는 건축인테리어전시회가 개최되어 건물 내외장재, 건축 장비, 주택 정보와 가구 등의 산업전이 펼쳐짐
- 전시회는 모두 QR코드를 통한 개인 정보 등록 후 비닐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했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 경상도: 대구 엑스코, 카페산업 박람회 '대구 베이커리 & 카페쇼' 개최

- 3월 12일~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SCO)에서 대구 베이커리 & 카페쇼(D-CAFÉ 2021)가 개최됨
- 대구 베이커리&카페쇼에는 총 80개사가 참가해 200여 전시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참가비 할인, 온라인 박람회 병행, 대구 카페거리 홍보관 등 기업친화정책을 통해 참가기업에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을 지원함
- 본 행사의 슬로건인 '베이커리와 커피의 도시,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 전시장 내 '대구 카페거리 홍보관'을 운영하여 팔공산, 동성로, 김광석다시그리기길, 수성못 등 대구의 카페거리 명소를 홍보하고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카페거리 사진찍기 대회'를 진행함
- 주최 측은 영남권 최대수요처인 대구에서 코로나 19로 장기간 마케팅 활동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2023년 건립 목표 설정**

-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 2021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
  - 코로나 19 이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장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달하는 등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제2 전시장 건립을 통해 혼잡 및 밀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광주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오는 4월 약정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의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023년까지, 1,1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1 주차장 1만 80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장을 완공할 예정임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광주 도심융합 특구로 선정됐으며, 광주역 일대가 호남권 최대 창업 단지, 도시 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지구에 선정돼 향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MICE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 광주시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은 2023년 제2 전시장이 건립되면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함



[그림 1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경

■ 강원도: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2025년 개장 목표

-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실, 회의실 11개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2022년 착공해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강원도는 적정사업 규모 조정요구에 따라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을 줄여 사업 규모를 1,817억 원에서 1,490억 원으로 조정해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재심의를 의뢰함
  -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목표는 강원도형 전시컨벤션 운영, 지역특화 주관 전시컨벤션 개발, 지역특화 MICE 행사 육성 방안 등 강원도만의 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
  - 또한, 강원도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MICE 행사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점이 투자 심의통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수도권과의 인접성, 중도내 입지의 장점 등으로 높은수요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인 전기자동차, 액화수소, 수열에너지, 양자통신, 스마트 토이 산업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22년 상반기 개장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 선사유적공원, 호텔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최고의 MICE 산업 메카로 성장,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경제발전의 화수분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